

[보도자료] 쿠팡, 덕평 주민들과 화재 피해 ‘복구 지원’ 협약 체결

2021. 11. 4.



- 상수도 연결사업, 의용소방대 운영 등 직접 지원 비롯해 기금 출연
- “주민 대책위 주관으로 복구 지원 사업에 속도 더할 것”

2021. 11. 4. 서울 – 쿠팡이 덕평물류센터 화재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약을 맺었다.

쿠팡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구성한 쿠팡화재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쿠팡은 화재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책위와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각종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쿠팡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책위는 지원금 관리 및 집행을 비롯해 지원사업 관련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쿠팡은 덕평2리 상수도 연결사업과 마장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또한 쿠팡은 대책위가 제안한 주민 복지 및 마을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한다.

노인회와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포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1월 4일 쿠팡과 덕평물류센터 화재 피해 주민들이 복구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명규 쿠팡 물류정책 전무(사진 왼쪽)와 김우영 쿠팡화재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 이원형 덕평1리 노인회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주민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가 사업 제반을 주관하게 되어 사업 진행이 보다 원만하고 신속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화재 이후 8월까지 주민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보상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주택 및 학교 등의 시설물 청소, 차량 세차 지원과 더불어 건강검진 및 전문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덕평리 주민들의 건강 진단 및 회복을 도왔다.

마장면 일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로켓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비권역에 따른 추가 비용은 쿠팡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지난 6월말에는 쿠팡 임직원들이 덕평리 인근 마을에서 정화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덕평리 농작물 매입 또한 주민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